

가을, 마음 살찌우는 '인문학'

전남대 인문대 26일~12월 12일 '호모 로쿠엔스' 주제 학기 진행
시민자유대학 11월 6일까지 동서양 논리와 도에 대한 탐구 등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대학과 대학 밖에서 인문학 강좌가 펼쳐진다. 전남대 인문대학, 시민자유대학이 각기 펼치는 인문학은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인문의 향기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젊은 연구자들이 풀어내는 새로운 해석 '호모 로쿠엔스'는 언어적 인간을 뜻한다. 언어를 매개로 상상력과 다양한 활동을 포괄한다. 오늘날 '호모 로쿠엔스'라는 용어는 인문학, 예술, 문예학 등 다양한 학문과 예술의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전남대 인문대학(학장 이성원)의 '함께하는 인문학'(26일부터 12월 12일)이 '호모 로쿠엔스의 인문학'을 주제로 가을 학기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가을 학기에는 최근 임용된 젊은 연구자들이 언어와 문학을 모티브로 인문학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를 들려준다. 젊은 연구자들의 관점은 인문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첫 강의 문은 오는 26일(오후 6시) 국어국문학과 윤병용 교수가 연다. 윤 교수는 인문대학 1호관 김남주기념강의실에서 '한국 시조문학의 거장들'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조선시대 사인들의 고전 시가를 연구하는 신진 연구자인 윤 교수는 호남 지역 사인들의 시조 연구에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월 31일에는 독일언어학과 지역은 교수의 '손으로 말하기-제스처의 인지언어학', 불어불문학과 백은교 교수의 '새로운 시대, 언어의 흐름과 변화'가 예정돼 있다.

다음으로 영어영문학과 김명성 교수가 '사이버 펑크 2077'과 과학기술 신자유주의(11월 28일), 중어중문학과 유인태 교수가 '디지털 인문학이란 무엇인가?'(12월 12일)를 펼칠 예정이다.

이성원 학장은 "함께하는 인문학"은 대학 구성원은 물론 지역민을 아우르는 인문학 프로그램 일환으로 기획됐다"며 "말과 언어를 모티브로 한 전문가들의 강의는 오늘날 인문학적 상상력이 왜 필요한



시민자유대학이 시민예술창작워크숍 일환으로 진행한 '큰인형 만들기' 장면. <시민자유대학 제공>

요하고 의미 있는 활동인지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세계시민적 관점으로 함께하는 인문학 '한마음(一心)으로 보는 인생 이야기: 논리와 도(道)의 대화', '시민합창단: 동트는 평화, 예술하는 시민', '시민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무등의 판을 벌이다!' 등.

세계시민적 관점으로 열린 대학을 지향하는 시민자유대학(학장 이유미)이 가을학기 다채로운 인문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오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학기는 3개 과목에 걸쳐 다양한 강좌가 개설됐다.

먼저 '한마음(一心)으로 보는 인생 이야기: 논리와 도(道)의 대화'는 서양의 논리학, 동양의 도에 대한 사유를 탐구한다. 파리10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정순백 조선대 교수가 온라인 실시간 화상수업을 진행한다. 24일 개강하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6회).

여름학기 시 창작 프로그램에서 창작된 시(주제 평화)를 모티브로 만든 노래를 부르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평화를 노래하는 '시민합창단: 동트는 평화, 예술하는 시민'(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이매진 도서관과 리버풀뮤지스튜디오)은 노래 창작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뮤직비디오를 제작한다. 문수영

소프라노와 안후 음악감독이 합창 지도를 하며 10명의 소수 인원을 모집한다. 오는 10월 17일 개강 6주간 진행된다.

시민자유대학이 광주문화재단과 협력해 기획한 시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시민 문화예술 교육 아카데미: 무등의 판을 벌이다!'는 '무등'의 개념을 확장한 프로그램이다. 예술 장르를 매개로 '무등'의 정신을 고찰한다. 광주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연관된 '무등'의 키워드를 철학적 시선, 문화예술의 관점으로 접근할 예정이다. 정운수 성공회대 교수(스포츠),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미술), 박구용 전남대 교수(철학), 황현필 역사바로잡기연구소 소장(역사), 조운범 바이올리니스트(음악) 등 각 분야 전문가 5인이 시민들을 만난다. 10월 2일, 8일, 23일, 11월 4일, 6일(오후 3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2강은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이유미 학장은 "시민자유대학의 가을학기 인문학 프로그램은 논리학, 동양의 도, 합창, 무등 정신 등 다채로운 모티브로 진행된다"며 "열린 대학을 지향하는 시민자유대학의 강사진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학문과 예술, 문화를 논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수강신청은 시민자유대학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모든 과목 무료. 문의 시민자유대학.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젊은 예술인 4인 4색 춤사위

국립남도국악원 28일 기획공연 젊은 예인전 I '전통의 미래'



왼쪽부터 장보름이, 문희영, 문기영 장예은.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전국적으로 젊은 예술인들의 기량을 가능하게 하는 '예인전'이 열리고 있으나, 출연진이 연출부터 구성 및 안무 작업까지 전 과정을 맡는 경우는 드물다. 국립남도국악원에서 활동 중인 네 명 단원들이 저마다 예술관을 투영한 4인 4색 창작 작품을 선보인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국악원)은 기획공연 젊은 예인전 I '전통의 미래'를 오는 28일 대극장 진악당에서 펼친다.

공연은 궁중정재 선유락을 재해석한 장보름이의 '신 선유락'으로 시작한다. 뱃줄을 끄는 장면을 미학적인 춤사위로 표현한 무용곡으로, 장 씨는 경기도당구 시나위춤 및 전남도 무형유산 진도복놀이 이수자로 현재 국악원 무용단 수석이다.

'술김'은 피아니스트 윤한의 '사려니 숲' 원곡과 민요 '새타령', 거문고 산조 중중모리를 합쳐 편곡

한 노래다. 가야금산조 및 빗창 전수교육생으로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장예은이 출연할 예정이다. (거문고 협연에 장운혜)

승무와 진도복놀이 전수자인 문희영은 창작무 '춤, 짓다'와 '초록으로 물들다' 두 작품을 선보인다. 그중 '초록으로 물들다'는 남도시나위 가락 및 장단 변화에 따라 '함'의 정서가 신명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형상화한다.

문기영은 노랫말 협연으로 피리, 거문고 중주 '육자배기'를 들려준다. 경기음악에 특화된 피리를 활용해 메기고 받는 선율을 관현악으로 옮겨온 곡, 문 씨는 국가무형유산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이자 전라삼현육각 전수자이며 개인 앨범 두 장을 발매했다.

무료 공연. 공연 전후 무료 셔틀버스 제공.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두 줄 현에 깃든 '비움의 미학'

해금합주단 '이현' 28일 정기연주회 광주예술의전당



지난해 광주북구문화센터에서 펼친 제5회 정기연주회 장면. <이현 제공>

오직 두 개의 줄로 공연장을 가득 채우는 '해금'은 비움의 미학을 떠올리게 한다. 가야금이나 바이올린에 비해 현의 수는 부족하지만, 기품 있고 정아한 음은 해금만의 품격을 보여준다.

해금합주단 이현(二絃·회장 김해숙)이 여섯 번째 정기연주회 '악, 출현인 성자연'을 오는 28일 오후 3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공연 제목인 '악, 출현인 성자연(樂, 出天人成自然)'에는 '음악은 하늘에서 발견돼 사람에게 머물고, 비움에서 발견돼 자연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았다.

신경환이 집박한 '도드리'로 막을 올린다. 보허지에서 파생된 관현합주곡이며 평조음계로 주로 국대민단, 태평성대를 위해 연주됐다.

'가을밤', '고향의 봄',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 대중에게 사랑받는 곡들도 레퍼토리에 있다. 이어 신디사이저 음색이 귀를 사로잡는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도 울려 퍼진다. 이 곡은 눈 덮인 설악산의 풍광과 동트는 새벽의 모습을 음악으로 형상화했다.

'님이 오시는지', 가곡 '가고파' 및 '그리운 금강산', 대중가요 '칠갑산', '모란동백', '침밀밭' 등 곡들도 전통의 신명을 선사한다. 끝으로 생활 독주 초창 공연(신선민 연주)과 '상주합창'을 주제로 한 '해금 이중주', '이리랑 모음곡'으로 막을 내린다.

한편 2018년 평생학습 일환으로 동구 지역에서 동아리 형태로 시작한 이현은, 해금 선율과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음악으로 소통하는 단체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

민음사 '오늘의 작가상' 장편소설 공모제로

민음사는 '오늘의 작가상'을 장편소설 공모제로 다시 개편한다고 23일 밝혔다.

1977년 제정된 오늘의 작가상은 장편소설 공모제 방식으로 운영돼오다가 2015년 공모제를 폐지하고 한 해 동안 출간된 작품 중 '오늘'의 감각에 가장 부합하는 작품을 독자들이 참여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후 2019년엔 신인 작가의 첫 소설 단행본으로 범위를 더 좁혀 수상작을 선정해왔다.

민음사는 장편소설 공모제 제도에 대해 "창작 환경 변화와 함께 소설 자체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 지금, 새로운 미래현상을 예측·주도하고 다

양한 현실을 반영·통찰하는 작품을 직접 출간해 문학현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48회 '오늘의 작가상' 공모는 내년 2월 28일 까지다. 신인·기성 작가의 구분 없이 200자 원고지 500매 이상(A4 1매 분량 사립시스 동봉)의 장편소설을 제출하면 된다. 상금(선인세)은 3000만 원이며, 수상작은 민음사의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로 출간된다. /연남뉴스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